

1. 종교다원주의 배격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277호
6월 28일
2025년
토요일

牧羊新聞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WEA와 서울총회 반대 분명한 이유

“WEA 굿윌 샤나 의장, 짐바브웨 신사도운동 이단 주장 또 다른 이단과도 동행”

한기총, 짐바브웨 현지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갖고 서울총회 반대 재천명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가 6월 17일(화)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WEA 서울총회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WEA(World Evangelical Alliance) 굿윌 샤나(Goodwill Shana) 의장 신학적 정체성 규명”이라는 주제로 2025 WEA 서울총회 개최 반대연합회 신학위원 김호욱 교수(광신대 역사신학)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기총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 사회로 명예회장 엄기호 목사의 개회기도 후 환영사를 전한 고경환 대표회장은 “지난 4월 29일 WEA 반대대책 포럼 후 한기총은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에 ‘WEA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모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찬반토론을 제언했지만, 조직위는 거절했다’며 ‘이후 WEA 의장이 사람의교회 설교자로 오셨을 때 WEA 의장과 몇몇 분이 한기총에 찾아오겠다고 했고, 저는 거절했다. 반대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분들과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경환 대표회장은 “WEA 서울총회가 한국교회를 위하는 것이라면, 반대의 소리도 듣고 찬성의 주장도 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교회의 우려와 염려는 상관하지 않고 행사만 치르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고 대표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김호욱 교수님과 김정환 사무총장님이 짐바브웨에 직접 다녀와서 ‘WEA 의장 굿윌 샤나의 신학적 정체성 규명’에 대해 준비해 주셨다”며 “짐바브웨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 그동안 WEA 서울총회 조직위에서 ‘굿윌 샤나 의장이 본인이 <사도>라고 지칭하는 건 아프리카의 문화라고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정보였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WEA 서울총회를 분명하게 반대한다.

그러면서 “오늘 발제를 통해 왜 한국교회가 WEA와 서울총회를 반대하는지 분명히 알고, 한국교회가 WEA와 교류해야 하는지부터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취지를 설명한 김정환 사무총장은 “저희는 WEA 굿윌 샤나 의장에 대한 문제를 작년에만 세 차례 성명으로 발표했다. 지난 4월 29일 한기총 대책 포럼에서 서장원 교수님은 샤나 의장을 ‘WEA의 교황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하셨다”며 “이에 고경환 대표회장이 고심 끝에 저와 김호욱 교수님을 (굿윌 샤나 의장이 목회하는) 아프리카 짐바브웨로 보내 현지 실정과 상황을 알아보게 하셨다. 오늘은 1주일 가량 현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자리”라고 전했다.

김정환 사무총장은 “신사도운동의 특징 중 하나인 자신을 ‘사도’로 칭하는 부분에 대해,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는 ‘아프리카의 문화일 뿐 신사도운동

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짐바브웨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 신학교육을 받은 후 목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면 자신을 ‘사도’로 부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것”이라고 폭로했다.

김 사무총장은 “WEA 의장의 신학적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대처해야 하지 않았는가. 세계적 대화라 하고 넉 달 뒤 서울에서 총회를 연다는데, 잘못을 목과할 수는 없지 않았는가 하는 대표회장님의 고심이 있었다”며 “잘못된 모습에도 WEA 서울총회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한국 기독교는 커다란 오점을 남길 것이다. 한기총은 WEA 서울총회를 분명하게 반대한다. WEA 조직위원회는 즉각 총회를 철회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한국교회 앞에 하나하나 해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WEA의 신학과 구성원과 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

이후 김호욱 교수는 ‘WEA 의장 굿윌 샤나의 신학적 정체성 평가’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굿윌 샤나의 신학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유는, 합동 총회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를 주축으로 2025 WEA 서울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의장이 굿윌 샤나이기 때문”이라며 “오정현 목사와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에 굿윌 샤나 의장의 신학적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이를 토대로 ‘2025 WEA 서울총회 개최’ 중단을 더 강하게 촉구하고, 합동 총회가 WEA의 신학과 구성원과 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WEA와의 교류·협력·가임을 일절 금해야 하다고 결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호욱 교수는 짐바브웨 현지 조사 내용과 함께 WEA 홈페이지, 굿윌 샤나가 개척해 운영하는 교회 ‘생명의 말씀 국제사역(Word Of Life International Ministries, WOLIM)’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그의 약력, 구드자이(Biri, Kudzai) 박사학위 논문 ‘아프리카의 종교 탐구’ 등을 참고해 굿윌 샤나 WEA 의장의 신학적 정체성을 보수 복음주의의 신학 입장에서 평가했다.

김 교수는 “굿윌 샤나는 1990년 짐바브웨 볼라와 요시에 설립된 WOLIM 창립자이자 담임목사로, 4명의 성도로 시작해 현재 남아공과 보츠와나, 레소토, 호주와 영국 등 5개국 1만 5천여 명으로 성장했다”며 “샤나 박사는 법률가 출신으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보유하고, 미국 오하이오주 풀럼버스 안디옥 성경대학(ABC)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 이 대학은 실체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굿윌 샤나는 종교다원주의 및
포용주의 신학을 견지

그는 크게 네 가지로 문제를 정리했다. 먼저 “굿윌

샤나는 짐바브웨 신사도운동의 수장이다. WOLIM 교회 개척 후 사도로 자칭했고, 담임목사(Senior Pastor), 성직자(Reverend), 주교(Bishop) 직분도 병용하고 있다”며 “이는 피터 와그너(Peter Wagner)의 신사도운동(New Apostolic Reformation, NAR) 구조와 매우 흡사하다. 짐바브웨 현지에는 ‘신사도운동’이라는 용어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사도운동을 하고 있다. 샤나는 명예박사 학위 외에 정규 신학교육 이수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WEA 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둘째로 “굿윌 샤나는 종교다원주의 및 포용주의 신학을 견지하고 있다”며 “그는 짐바브웨기독교교단 대표회의(ZHOCD) 의장을 역임했는데, ZHOCD는 짐바브웨복음주의협회(EFZ), 짐바브웨 가톨릭교회(ZCBO), 짐바브웨 교회협의회(ZCC), 짐바브웨 시온 및 사도교회 발전연합회(UDACIZA)의 연합체이다. ZCBO는 로마가톨릭 단체이고, UDACIZA는 이단적”이라고 지적했다.

셋째로 “복음주의 입장에서 굿윌 샤나는 이단이고, 또 다른 이단을 수용한다”며 “UDACIZA는 짐바브웨 내에서 독립사도교회(Apostolic)로 알려진 기독교 이단 단체의 연합체이다. 이들은 구약성경만을 고수하고, 계시와 예언, 조상숭배와 마법 등 아프리카 전통종교를 혼합한 혼합종교(wyncretism) 형태를 띤다”고 했다.

복음주의 입장에서 굿윌 샤나는
이단이고, 또 다른 이단을 수용한다.

이에 대해 “그러므로 굿윌 샤나는 신사도운동을 하는 이단이며, 독립사도교회와 조직적·제도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또 다른 이단과 동행했다”며 “굿윌 샤나는 WEA 의장으로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단절하거나 비판한 바 없다”고 이야기했다.

넷째로 “굿윌 샤나는 복음주의 교리에 맞는 목회자도 신학자도 아니다”며 “이런 사람이 WEA를 대표하고 있는 현 상황은 WEA 자체의 신학적 혼란과 방향 상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따라 복음주의 신학을 지향하는 교회는 WEA와의 연합활동을 단호히 중단하고, 성경 중심적 신앙과 정통 교회를 보존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복음주의 정통 신앙을 지키려는 교회와 교단을 향해서도 ①굿윌 샤나와 WEA의 신학을 검증하고, 성경에 비추어 이단성과 타협성을 경계하길 바란다 ② WEA 의장 굿윌 샤나가 주도하는 ‘2025 WEA 서울총회’ 개최와 후원을 중단하길 바란다 ③‘2025 WEA 서울총회 준비위원회’는 성경 중심의 교회론과 목회학 이해에 근거해 WEA와의 교류·협력을 전면 재고하길 바란다 등 3가지 신학적 결단을 요구했다.

복음주의의 본질은 결코 조직이나
외형에 있지 않고, 오직 성경에 기초한
진리 안에서만 보존될 수 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교단의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진리의 보존과 교회의 거룩성, 그리



‘내가 곧 길이다’



조용목 목사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1~6)

길은 어떤 목적이나 목표에 이르게 해주는 수단이나 과정입니다. 길은 문제의 해답이나 해결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길이 막혔다’ ‘길을 모른다’ ‘길을 잃어버렸다’ ‘길이 없다’라는 상황은 사람에게 근심과 불안, 좌절과 절망에 처하게 합니다. 그런 상태에 직면한 사람에게 ‘길을 찾았다’ ‘길이 있다’는 말은 더 할 수 없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말씀의 뜻을 알게 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다” 하신 말씀에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궁극적인 길이 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찾고 있는 궁극적인 길이란 영생과 천국에 이르는 길입니다. 종교는 바로 이 길을 찾기 위해 생겨난 것입니다. 인생들은 영생에 대하여 온갖 이상한 사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윤회사상’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라를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종교는 영생과 천국으로 가는 길을 찾는 인간이 고안해 낸 길입니다. 오늘날에는 의학과 유전공학의 발전에 힘입어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길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길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사람이 닦는 길은 어떤 길이라도 자타를 속이는 길에 불과합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해 놓았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가려고 할 때 길을 잘못 들게 되면 아무리 착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힘써서 가더라도 헛소고를 하고 맙니다. 죄악 중에 출생한 인생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영생과 천국의 길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과 천국에 이르는 길입니

다. 영생의 길,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멀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차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다” 하신 말씀에는 예수님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직면하는 곤란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길이 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지혜를 주십니다. 무슨 문제가 닥쳐와도 해결 길을 주십니다. 풍파가 심하게 일어나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을 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서 호소하니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곧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운데 세우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호소했습니다. 예수님은 풍파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19,20) 하였습니다. 우리가 진퇴양난의 곤경에 처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길 되시는 주님에게 도움을 호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홍해를 건넌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길이 되심을 극적으로 보여 주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는 바다요 좌우에는 높은 고원이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해결 길이 없다. 다 죽게 되겠다.”고 생각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앞뒤 좌우에 길이 막혀도 그는 하늘로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의 길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께서 그에게 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중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해결 길이 있습니다.

(은혜와진리교회)

2026년도 목사고시일정 확정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74차 총회 고시위원회 1차 회의

교단 고시위원회(위원장 이석호 목사)는 지난 6월 19일(목)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74차 총회 고시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2026년도 목사고시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고시위원회 서기 이경진 목사의 사회로 고시위원 이문근 목사의 대표기도, 고시위원장 이석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고전 4: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자들이 되어

야하며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목회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회자가 배출되도록 해야함”을 강조했다.

고시위원장 이석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목사고시 세부일정을 확정했다. 목사고시 서류접수 마감은 2025년 8월 29일(금)까지이며 목사고시는 2026년 2월 2일(월), 3일(화) 양일간 치러진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본지 1277호 7면에 게재되는 목사고시 세부일정 광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 성도들의 영적 보호를 위한 필수적 책임”이라며 “복음주의의 본질은 결코 조직이나 외형에 있지 않고, 오직 성경에 기초한 진리 안에서만 보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WEA가 WCC보다 건전한 교회에 주는 영향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뒀다. WEA는 ‘복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WCC보다 더 복음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WEA 의장 선출 과정

도 모호해 보인다. 굿윌 샤나는 토마스 슈르마허가 사무총장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국제이사회라는 WEA 한 부서의 의장이었다. 그런데 슈르마허가 사무총장직을 사임하자 사무총장이 되더니, 지금은 의장이 됐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6면으로 이어집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AI 기술 국제 공모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함께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KOICA)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AI 기술 국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AI for Climate Action Awards (이하 AICA 어워즈)’라 명명한 공모전은 지난 5월 21일 기후 주간(Climate Week) 행사 개최식에서 사이먼 스티엘(Simon Stiell) UNFCCC 사무총장이 공식 발표했다.

AICA 어워즈는 AI 기술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혁신 솔루션을 발굴하는 국제 공모전으로, 최빈개도국(LDCs)과 군소도서국(SIDS)의 기후위기 적응 및 완화를 위한 오픈소스 기반의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솔루션 발굴을 목표로 한다.



AICA 어워즈는 2024년 처음 개최됐으며, 올해부터는 코이카가 공동 주최 기관으로 공식 참여한다.

이번 어워즈에서는 농업, 에너지, 물, 폐기물, 조기경보시스템 등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AI 솔루션을 찾는다.

공모전은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 있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라면 국적 제한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설문서는 최빈개도국(LDCs) 또는 군소도서국(SIDS)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설문서 대상 국가 출신 개발자와 팀을 이뤄 참가하면 심사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공모는 7월 31일까지 모집하며, 9월까지 총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최종 우승자를 결정한다. 우승자는 오는 11월 브라질 베렐(Belem)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현장에서 직접 프로젝트를 발표할 기회를 갖는다.

또한 이 자리에서 국제 기후변화 전문가들과 네트워킹하고 본인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마약예방 부스 1,900여 명 청소년 발길

“약물OUT, 진로IN!” 2025 천안 진로직업체험박람회에서

(사)대학을위한마약및중독방센터 (이하 담록, DAPCOC Drug & Addiction Prevention Center On the Campus. 이사장 두상달)에서 지난 6월 4일(수)부터 6월 5일(목) 양일간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25 천안 진로직업체험박람회’에 참여해 청소년 대상 마약예방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담록은 이번 박람회에서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마약예방 날말찾기’ 활동을 부스 내에 운

영했으며, (주)필메디의 후원으로 제공받은 GHB(일명 물불) 검출 시약지 G-CHECK를 활용하여 마약탐지 체험을 하며 청소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체험형 마약예방 교육을 함께 진행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의 구별 방법까지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담록 박상규 사무총장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마약예방 교육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가 중독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부스 운영에 참여한 담록 대학생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실질적인 인식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걸 느꼈고 앞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마약예방교육을 전달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부스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게임도 재미있고 설명도 쉬워서 친구들이랑 같이 더 집중해서 참여할 수 있었고, 이제는 누가 권해도 거절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DAPCOC(Drug & Addiction Prevention Center On the Campus)은 대학 캠퍼스 내 마약류 범죄 및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대학 내에서 마약류 중독 및 범죄 예방 교육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건전한 예방공동체를 구축하고 전국 대학캠퍼스에 다양한 문화운동을 전개하여 청소년, 20대 청년과 대학생들을 마약류 범죄와 중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16회 정기총회 예성 홍사진 목사 대표회장에

한국성결교회연합회 성결교단간 연합과 협력

한국성결교회연합회(한성연)는 지난 6월 16일(월) 성결대학교에서 제16회 정기총회를 열고, 순반제에 따라 예성 총회장 홍사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추대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외에도 공동회장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안성우 목사와 대한기독교노사렛성결회 총회장 최형영 목사를 선임했다.

대표회장 홍사진 목사는 “기성과 나섬, 예성이 끈끈하게 연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세 교단이 힘을 모아 올해 ‘다음세대 연합캠프’를 준비 중이다. 이 시대의 소망인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관련 사역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안성우 목

사가 벤전 1:13-21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하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이어 성결대 정희서 총장의 환영사, 최형영 감독의 축사, 예성 직전총회장 김만수 목사의 격려사, 기성 직전총회장 류승동 목사의 축대로 순서를



마쳤다.

한성연은 성결교단간 연합과 협력을 위해 2010년 출범했다. 그동안 목회자 체육대회, 사회복지정책포럼, 농어촌 레노베이션 사역 등 연합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1577-1389’ 신고센터

1년 내내 노인인권 지속적으로 지켜나가야

매년 6월 15일은 세계 노인학대 예방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입니다.

이 날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노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학대, 그리고 방임(돌봄을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까지 다양하다. 특히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관심과 감시가 절실하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학대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신고센터(1577-1389) 운영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노인학대 예방,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작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폭행, 신체적 강제로 억압, 물리적인 힘에 의한 위협	욕심, 고의적인 따돌림, 무시	노인의 재산을 허락없이 사용하거나 강취
성적 학대	방임 및 자기방임	유 기
성폭력, 성희롱	의식주, 경제적 및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

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든다. 노인인권은 1년 내내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 주변의 어르신께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어린 시선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 1577-1389 (24시간 운영)

‘25한국미용예술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논문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학생 졸업생 수상

성결대학교(총장 정희서) 일반대학원 뷰티메디컬비즈니스학과 소속 재학생 성지혜 씨와 졸업생 김도연 씨가 지난 6월 13일(금) 차의과학대학교 차바이오텍플렉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5 한국미용예술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K-뷰티의 미래산업전략: Beyond Wellness’를 주제로, 뷰티와 헬스케어 융합 분야의 실증 연구들을 중심으로 발표가 이뤄졌다.

성지혜 씨는 “네일숍에서 활용 가능한 조갑진균증의 중증도 평가 방법이 신

뢰도 검증” 논문에서, 해외에서 사용되는 조갑진균증 중증도 평가 지표(OSD)의 국내 네일숍 적용 가능성을 분석해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도연 씨는 「눈썹 반영구 화장 증강현실(AR) 체험이 소비자의 위험 지각 변화와 구매 전환 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을 통해, 2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AR 기반 가상 체험이 미용 서비스 구매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혀 디지털 마케팅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멕시코 마자텍어 구약번역 및 성경제작 지원

소망교회, 대한성서공회에 1억 7천만원 전달

6월 11일, 소망교회(김경진 목사)는 대한성서공회(이사장 이선균 목사)에 멕시코 마자텍어 구약 성경 번역과 첫 번역 성경 제작을 위한 후원금(1억 7천만 원)을 전달하였다.

소망교회는 다가오는 2027년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며 이를 위한 첫 번째 기쁜 프로젝트로 아직도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는 멕시코 마자텍 부족의 모국어 성경 번역 및 제작을 후원하기로 작정하고, 지난 1월 19일 온 교회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 이를 위해 헌금했다.

소망교회와 후원하는 멕시코 산 페드로 익스카틀란(San Pedro Ixcatlán) 지방의 마자텍 부족은 멕시코 중남부 오아하카주와 베라크루스주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는 약 2만 5천 명에서 3만여 명으로 추산한다.

1980년 흉수의 피해를 막고 대도시 전력 공급을 위해 지어진 인공 댐인 알레만

(Alemán) 댐의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고 강제 이주하는 등 공동체가 사멸될 위기가 있었으나, 부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면면히 마자텍어를 유지해 올 수 있었다.

아직도 부족 인구의 대부분이 마자텍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다른 원주민 부족들과 마찬가지로 농업이나 어

업을 기반한 낮은 소득의 원천과 사회 제반 시설의 부족으로 대다수 빈곤층으로 살아가고 있다.

멕시코는 1억여 명의 인구 중 원주민이 1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364개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많은 언어가 존재하는 나라이다.



월드비전 꿈꾸는아이들 ‘점프’ 국토대장정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 직접 체험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은 강원도 해파랑길 일대에서 진행된 ‘2025 제7회 월드비전 꿈꾸는아이들 점프(Jump)’ 국토대장정이 6월 7일(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된 해단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강원도 삼척에서 출정식을 시작으로 출발한 이번 국토대장정은 월드비전 꿈

지원사업 ‘꿈꾸는아이들’의 일환으로, 월드비전 꿈디자이너에 참여하고 있는 중학교 2학년 100명이 참가했다.

인솔자와 안전 스태프까지 총 17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이들은 3박 4일간 삼척에서 양양까지 강원 해안선 60km를 끝까지 완주하며 도전과 연대, 환경 실천을 몸소 경험했다.

이번 대장정에서 참가 아동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출정식 현장에서는 고래가 살아있는 동안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죽은 뒤에는 바다에 가라앉아 탄소를 흡수하는 생태적 순환을 알리는 ‘고래펄프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또한 참가 아동들은 행군 중 플로깅을 통해 우운 쓰레기로 자신만의 환경 슬로건을 제작하고 발표하는 ‘슬로건 퍼포먼스’, 텀블러 사용 및 해변가 쓰레기 줍기 등으로 구성된 ‘쓰레기 최소화 행군’을 통해 지구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직접 인식하고 실천했다.

아울러 개발도상국 아동들이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매일 평균 6km를 걷는 현실을 함께 체험하고 공감하기 위한 월드비전의 ‘글로벌 6K 마라톤’ 캠페인의 의미를 포함한 야간행군도 진행됐다.



세계 선교의 현재상황 점검 대안 모색

기침 제5차 글로벌리더십세미나

한국기독교침례회(총회의장 김근식 목사)는 지난 5월 22일~27일까지 해외 사역자 초청 제5차 글로벌리더십세미나를 진행했다. 청주, 군산, 강경 등 중부 지역 일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계 선교의 현 추세와 향후 방향, 앞으로의 대안을 모색하는 매우 귀중한 자리로 진행됐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에는 일본, 필리핀, 과테말라, 인도 등에서 활동하는 한침 소속의 사역자들이 함께했다. 침례교단의 본래적 목표대로 선교하는 총회를 꿈꾸는 기침은 교단 출범 이후 해외 선교에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사업을 전개해 왔다.


국제적인 일정은 청주진성교회(담임 김

종포 목사)에서 진행된 1차 세미나와 군산새나라교회(담임 이순자 목사)가 주관한 한국문화체험 등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김종포 목사(한침 사무총장), 한상식 목사(한침신학교 이사장), 김영 목사(한침 재정사 무국장)가 주강사로 현 기침의 선교 현황과 성과, 앞으로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제시했으며, 해외 사역자들이 코로나 이후 새롭게 정착한 각국의 선교 동향을 보고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 일정동안 참가자들은 강경에 위치한 한국 최초의 침례교회인 강경침례교회를 방문했다. 강경침례교회는 미국 침례회 소속의 보스톤 클레멘트 스트리트 침례교회 선교부에서 파송된 폴링선교사에 의해 1896년에 창립된 교회다.

1 생명의 말씀 1



김 바 울 목사

- 경기지방회 전임회장
- 순복음진리교회 담임

초대교회에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지만 오늘날에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복음전도를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필요했지만 오늘날에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표적과 기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갖는 문제점은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과 성경의 완성이 무슨 절대적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신구약성경이 완성된 것이 표적과 기사가 끝나야 할 이유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도여행을 떠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의 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행 14:1-3) 본문은 주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러 했던 믿음의 복음

(행 14:1-28)

이유를 두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 믿게 하기 위함이며, 둘째는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번째 목적인데,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의 그 은혜의 말씀 위에서 증거하는 그 주님 위에서 담대히 말하면서”입니다.

여기서 “은혜의 말씀”(토 로고 테스 카 리토스)은 성경말씀이 아니라 말씀(호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호 로고스)’ 위에서 역사하는데, 바울은 그 말씀 위에서 담대히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가 아니라 그 말씀(호 로고스)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며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그 말씀과 더불어 표적과 기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대교 율법주의에 세뇌된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상한 신비주의 이단으로 몰아서 그들을 핍박하였는데 이런 일은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이 유대인 보다는 이방인들

로 방향이 바뀐 것은 이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하면 그것도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는 끝났으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는 마귀가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감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의 설교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네 발로 일어서라!”고 하니 그가 고침을 받아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본 무리들이 놀라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하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였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고대 헬라인들이 믿던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를 하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말했습니다.(행 14:15)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신)을 찾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내고 신령해 보이는 사람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만 그 말씀(호 로고스)으로 살아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신령해 보이는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과 동행해야 할 복음적 신앙이 눈에 보이는 교회건물과 사람(목회자)을 섬기는 종교로 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핍박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잘못된 신앙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택한 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적 존재로 섬기려하자 그것을 못하게 막았으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들을 살리셨고, 다시 ‘데레’라는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행 14:22에는 이처럼 복음전도에 어려움을 겪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1)이 믿음에 머물라 (2)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3)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는 바울일행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교회에 돌아와서 전도보고를 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전도한 숫자나 그들이 세운 교회 건물 수가 아니었습니다. (행 14:27-28)

(1)살아계신 주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간증했고, (2)어떻게

이방인들이 그 말씀(호 로고스)이신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문을 열었는지를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살아역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그 말씀(호 로고스)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신앙을 상실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공부하고 식사하며 교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 말씀(호 로고스)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기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간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적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리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 안에 계셨던 그 말씀(호 로고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만을 인식하면 되고, 말씀이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믿음의 복음이며 믿음의 그 말씀(호 로고스)입니다. 살렘! 그 말씀(호 로고스)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6·25전쟁, 75주년에 생각하는 교훈

올해로 6·25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이 된다. 이 전쟁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우리 민족 최대의 끔찍한 전쟁이었다.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인명 피해만 약 300만 명에 이르며, 전쟁고아 10만 명, 전쟁 미망인 30만 명, 피난민 1,00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에 이른다.

또 재산 피해는 전 국토의 80% 이상이 피해지역이었는데, 지방까지도 피해가 컸다. 전국 1,000여 개 읍면 중에서 600개 지역이 파괴되었다. 건물도 60만 채가 파괴되었다. 산업시설의 45%가 파괴되었다.

철도는 약 2,000Km가 파괴되었고, 도로도 수천 km가 유실되었으며, 주요 교량도 1,000여 개가 파괴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30억 달러(당시 GDP의 5배)에 달한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전후 30억 달러의 원조 금액

을 보내 준다.

6·25전쟁은 75주년을 맞이하고 있으나 ‘정전 상태’로 불안한 가운데 놓여 있다. 여전히 북한 공산당은 대한민국을 적화(赤化)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분명히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북한은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한 후에도, 유엔군사령부의 집계에 의하면, 1953년 7월 27일부터 1994년 4월까지 무려 40만 건 이상을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후에도 연평 해전, 천안함 폭침과 같은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가 이처럼 무참하게 6·25전쟁을 겪게 된 이유가 뭔가? 1948년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들어선 이후,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에게 48차례에 걸쳐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자고 요청했으나 스탈

린은 묵살하였다.

그러던 것이 1949년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모택동의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스탈린도 김일성에게 남침을 허락하게 된다. 이는 소련의 세계 공산화 전략과 김일성의 대남 적화 야욕, 그리고 소련의 지시로 중공군의 대대적인 침략으로 빚어진 한반도에서의 비극이었다(중공군의 개입으로 우리나라는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다).

한때 대한민국에서조차 ‘북침설’과 ‘남침유도설’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었으나 수많은 반박 자료에 의하여 논파(論破)되었다. 6·25전쟁은 소련과 중공과 북한에 의한 치밀한 계획 속에 이뤄진 전면적인 남침임에 틀림 없다.

우리는 75주년을 맞는 6·25전쟁을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불행한 전쟁을 방지하려면 철저한 힘에 의한, 대비가 가장 중요하

다. 이 땅에 평화가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은 1953년 10월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하여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 협정으로 미군이 합법적으로 이 땅에 주둔하고, 그 힘에 의한 전쟁억제력과 북한 공산당의 오판을 미연(未然)에 방지한 까닭이다.

지금도 미군과 철제한 공조 없이는 자유대한민국의 안위를 보장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한반도에서 절대로 다시는 6·25전쟁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전쟁은 수많은 피를 흘리게 한다. 미국의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버는 ‘전쟁은 노인이 시작하고 젊은이가 죽는다’고 하였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전쟁은 누구에게도 승리를 주지 않는다. 오직 상처만 남긴다’고 하였다. 미국의 작가 어니스트 헤밍

웨이는 ‘전쟁은 인간이 만든 가장 잔혹한 게임이다’라고 하였다.

자유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어설픈 정책의 오류나 과거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그들에게 핵무기를 만들 시간과 자금을 대준 사례가 있었다) ‘감상적 평화주의’로 되는 것이 아니다. 평화 정책도 상대방의 호응 반응과 협력을 예의(銳意) 주시하여 정확히 평가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6·25전쟁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전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전쟁을 대비하고, 억제하고, 평화가 실제적으로 존속하도록 힘써야 한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쟁으로 망한다.

그렇지만 그 전쟁이 일어나도록 발미를 주는 것도 매우 어리석은 일임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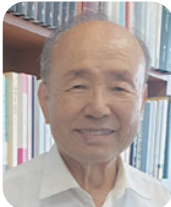
피터 패티슨 선교사 한국 방문



“한국은 제게 두 번째 고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후, 한국에서 받은 사랑은 평생 잊지 못할 은혜였습니다.” 88

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있는 영국 출신 배도선(Dr. Peter R. M. Pattison, 피터 패티슨) 선교사가 최근 의료선교대회 참석차 한국을 다시 찾았다. 오랜만의 방문이지만, 그에게 여전히 익숙하고 반가운 얼굴들이 가득했다.

사랑의대음악회, 사랑의장기기증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 목사, 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6월 14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23회 사랑

의대음악회 ‘다시 사는 세상, 함께 나누는 생명: 나로부터 시작되리’를 개최했다. 올해로 23회를 맞은 사랑의대음악회는 군산을 대표하는 생명나눔 행사로 자리매김, 해마다 시민과 함께 감동을 나누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신설 반대



한국성과학연구협회(회장 민성길 교수, 총무 이명진 원장)가 “성평등가족부 신설을 반대한다”며 “가정을 무너뜨리는 젠더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일(금) 성명에서 “가정은 사회의 기초다. 대한민국은 남녀가 결혼하여 이루는 전통적 가정 위에 세워진 국가”라고 강조했다.

태아 생명권보호 입법시급



기독교 생명윤리전문가들이 낙태죄 입법의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지적하고, 태아 생명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정비의 시급성을 호소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 이상원 교수)는 지난 19일(목) 서울 동작구 엘벤텔교회에서 ‘낙태죄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협회 상임대표 이승구 교수(합신대 명예교수)가 설교를 전했다.

홈페이지 : www.ucts.org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ASSEMBLIES OF GOD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5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예 수 교 대 한
하나님의성회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영합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http://gd.ucts.org>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ASSEMBLIES OF GOD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5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예 수 교 대 한
하나님의성회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 훈**
 - 말씀충만, 성경충만.
 - 목망일생.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31)944-518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http://gd.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 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 수 :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영합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http://gd.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6월 월례회 및 목회자기도회 개최

“소합향의 기도로 주님의 회복을 누리는 지방회”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배영례 목사)는 지난 6월 12일(목) 오전 11시, 은혜의복음교회(담임 김경순 목사)에서 6월 월례회 및 목회자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는 제65차 정기지방회 이후 처음 열린 공식 모임으로, 교단과 나라, 지역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와 함께 회원들의 단합과 영적 재부장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됐다.

1부 예배는 총무 김경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서기 조은주 목사의 기도에 이어 출 30:6~10, 마 16:19 말씀을 본문으로 회장 배영례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배 목사는 “가나안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천국 열쇠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풀고 있는지 돌아보자”고 권면하며, “이 시대를 열어가는 믿음의 초석이 되자”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소합향을 깨뜨리는 헌신의 기도야말로 교회와 민족, 가정을 회복시키는 통로”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 교단과 교회를 위한 합심기도 시간이 마련됐으며, 재무·회계 장지선 목사의 헌금기도, 직전회장 김영호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에서는 제1차 월례회가 곧바로 열려 각종 회무와 향후 사업계획을 은혜 가운데 논의했다.

전임회장 조길수 목사는 회원 간의 단합을 위한 친교 활동 추진을 제안했고, 전임회장 주덕영 목사의 동의와 조길수 목사의 제청으로 폐회가 선언되었다. 회장 배영례 목사의 기도로 모든 회무가 마무리됐다.

이날 행사 후에는 은혜의복음교회의 정성 어린 식사 섬김과 함께, 최예자 전도사의 과일 제공 등 따뜻한 환대 속에서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며, 참석자들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

6월 월례회, 나라와 교단 지방회, 교회부흥 위해 기도

충남지방회

충남지방회(회장 안종식 목사)는 지난 6월 16일(월) 오전 11시 축복기도원(김옥연 목사)에서 6월 월례회 및 연합예배를 드렸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라는 주제 아래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김순구 목사(사랑이넘치는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영희 목사(순복음창대교회)의 대표기도, 함청석 목사(예사랑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창 12:1-4)이 있었다.

특송 순서에서는 박애늬 목사(대한민국 축구선교회)가 ‘주님 나 여기 있어요’라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지방회장 안종식 목사(예일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안 목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라는 제목의 설교말씀을 통해 성경 속 아브라함의 순종을 예로 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을 강조했다.



이날 회원들은 한마음으로 나라와 민족, 교단과 지방회, 교회 부흥, 목회자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박안나 목사(화평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후, 오승욱 목사(천안시목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했다.

이날 예배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가운데 참석자 모두가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

었으며, 충남지방회 소속 교회들이 더욱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곧바로 이어진 월례회는 지방회장 안종식 목사 주제 하에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축복기도원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하고 사람의 교제를 나누는 후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6월 월례회 및 야유회 개최

전도자는 고난 속에서도 맡은 직분을 성실히 감당해야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남수 목사, 밝은빛교회)는 지난 6월 10일(화), 평택시 소재 백두수산 VIP룸에서 6월 월례회 및 야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예배는 김진태 목사(선한열매교회)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은숙 목사(선한순복음교회)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사모중앙단의 은혜로운 특송에 이어 배영철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배 목사는 딤후 4:1-8 말씀을 본문으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전도자는 고난 속에서도 맡은 직분을 성실히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중하라’는 본문 말씀을 언급하며 “무게감 있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뜻”이라고 설명하면서, 목회자들은 운유함과 겸손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자로서 각자의 목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설교 후에는 나라와 교단, 지방회, 병약한 이들을 위한 합심기도가 이어졌으며, 배길선 목사(반석샘물교회)의 헌금기도와 김남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6월 월례회를 은혜롭게 마친 후 참석자들은 지방회에서 마련한 장어구이로 함께 오찬을 나누고, 인근 내리문화공원으로 이동해 찬양과 간증, 사람의 교제 시간을 가졌다. 이어 저녁 식사로 이설욱 냉면을 함께한 뒤 각자의 목회지로 귀가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자”

경기남서지방회 6월 월례회, 김기인 목사 설교

경기남서지방회

경기남서지방회(회장 김기인 목사)는 지난 6월 16일(월) 오전 11시, 혈문산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6월 정기 월례회를 개최했다. 예배는 총무 이광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부회장 김남수 목사의 찬양 인도, 서기 이미경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렘 4:17~32)에 이어, 회장 김기인 목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변덕스러운 마음을 진리와 정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령에서 떠나 방랑과 더러움에 이끌리는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리는 예수 안에 있으며,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약독과 노함, 분냄과 비방을 버리고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이웃을 품는 삶이 진정한 새 사람의 모습”이라며 “이렇게 변화된 삶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도 전했다.

말씀 후에는 부회장 임경영 목사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 교단과 지방회, 개교회와 교

역자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이 이어졌고, 회계 표현자 목사가 헌금기도를 드린 뒤, 김기인 회장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 열린 2부 회의에서는 회원 정명 및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으며, 이후 혈문산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함께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따뜻한 섬김에 감사를 표하며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성경적인 설교’, ‘기질과 특성을 살린 목회’ ‘건강한 교회’ 모색

부흥사회 춘계세미나 6월 16일~17일 경남 통영에서 개최



강사 안병찬 목사 외 김경수 목사·조은혜 목사



김경수 목사
부흥사회장

교단 부흥사회(회장 김경수 목사)는 지난 6월 16일(월)~17일(화) 1박 2일간 경남 통영 은혜와평강교회(담임 황용연 목사)에서 부흥사회 춘계세미나를 개최하고 성경적인 설교와 기질과 특성을 잘 파악하는 목회, 건강한 교회를 모색하고 한국교회와 교단을 위해, 국가와 바른 정치를 위해 한마음 모아 기도했다.



세미나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에서 신재영 목사(부흥사회 지도교문)는 히 2:1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우리 부흥사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사명을 어떤 시대나 어떠한 상황이 막쳐와도 절대로 흘러 떠나려 보내지 말고 굳게 잡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진 세미나 1강에서 안병찬 목사(순복음잠아름다운교회)는 ‘기질과 목회’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목회자 자신과 성도들의

기질과 특성을 잘 파악하고 각 기질별 장점을 잘 찾아내어 교회의 각 기관의 적재적소에 투입하므로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교육했다. 이어서 2강은 조은혜 목사(상임총무)의 ‘미술과 심리치료’라는 강의를 통해 각자가 그린 그림을 분석하여 각 사람들 내면의 상처와 쓴 뿌리들을 잘 찾아내어 치유시키고 회복시켜 줌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당부했다.

세 번째 강의에서 부흥사회장 김경수 목사는 ‘부흥사들의 설교기법과 집회 에티켓’



6월 정기월례회 개최하고 지방회무 처리

부부가 한마음으로 동역하는 목회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김중연 목사)는 지난 6월 9일(월) 오전 11시 선한이웃교회(담임 은금홍 목사)에서 6월 정기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전제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윤진철 목사의 기도, 재무 이동윤 목사의 성경봉독, 임창운 목사(동서남북교회)의 설교, 회계 김경순 목사의 헌금기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임창운 목사는 렘 5:28-33 말씀을 본문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사랑이 믿음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도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늘 아내와 함께 즐겁게 지내며, 부부가 한마음으로 동역하는 목회가 되길 바란다”며 회원들을 축복했다.

예배 후에는 한 회기 동안 헌신한 전임회

장 안재봉 목사(순복음비전교회)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공로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정기월례회가 열려 지방회의 각종 회무를 은혜롭게 처리했다.



을 주제로 가장 성경적인 설교와 집회를 통해 각 교회마다 부흥의 불씨를 지피주는 촉매제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을 권면했다.

이튿날 지방회원들은 이순신 공원을 방문해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 전투에 대해 듣고, 통영에서 배를 타고 만지도에 내려서도

보로 출렁다리를 건너 연대도까지 왕복하며 서로의 사역 현장에서의 애환들을 나누고 위로가 되는 소중한 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필리핀 현지 지도자양성·복음의 통로 열어

대한태권도선교회, 필리핀 경찰선교 토대 다져



이후관 목사
대한태권도선교회장

대한태권도선교회(대표회장 이후관 목사, 순복음신나는교회, 예하성 서울남서지방회)는 사랑의 기도와 후원 속에 2025년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필리핀에서의 태권도 선교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사역은 모리아교회, 화평의집교회, 피스메이커교회 등 세 교회의 지도자 후보 23명을 대상으로 한 합숙훈련으로 시작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새벽 1시간 기도, 오전·오후·저녁 각 2시간씩 하루 총 7시간의 태권도 수련과 더불어 수련 전 30분씩 하루 2시간 이상의 성경공부를 병행하며 전심으로 훈련에 임했다.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수련과 말씀에 집중한 이번 훈련에서는 단 한 명의 나약자 없이 모든 이들이 끝까지 완주하였으며, 마지막 날에는 수영장을 찾아 피로를 풀며 기쁨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함께 동행한 이정미 선교사의 헌신적인 섬김은 모든 참여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어지는 일정에서는 현지 한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신학교의 신학생 30명이 태권도 훈련을 새롭게 시작하였으며, 이는 목



회자 후보생들의 체력 단련과 제자 양육의 실제적인 도구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존 PRO6 경찰청과의 재계약이 무산된 가운데, 새롭게 일로일로 시청과의 태권도 수련계약이 추진되고 있다. 이 계약이 성사될 경우 일로일로 시립대학(ICC) 범죄심리학과 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지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는 향후 필리핀 경찰선교의 토대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모

든 과정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고백한다.

이번 선교사역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는 기도 동역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한다.

대한태권도선교회는 할렐루야태권도선교회라는 이름으로 2001년 현 선교회 회장인 이후관 목사와 평신도 태권도 지도자 2인의 기도모임을 통해 세계스포츠타권도 소속 할렐루야태권도단 경인지회로 시작되었다.

이후 필리핀, 러시아, 라오스에서 거행하는 할렐루야태권도선교회회를 지원함으로 선교지에서 태권도선교가 활성화 되는데 앞장서온 대표회장 이후관 목사(순복음신나는교회, 예하성 서울남서지방회)는 선교회 명칭을 대한태권도선교회로 개명하고 태권도선교신학의 정립과 교육과 훈련, 협력을 위해 선교사역에 힘써왔다.

연락처 010-2322-0049

후원계좌 신한은행 110 220 755147

서울남서지방회 순복음신나는교회

이후관 목사

목양시선

전경옥 권사 // 과천성전

신우대꽃 곁에서 <1>

찬 서리 내리는 밤
폭풍 한설 건디고
50년 만에 피운 대나무 꽃

노고단 별빛 쏟아지던 밤
대꽃 앞에서 멈춰 다가섰네
까지달로 기다렸는가
꽃물 잎새마다 가냘픈 음계

대꽃 응시하던 눈망울로
남편의 뒷모습 바라보니
실타처럼 이어진 한 생을
가을날 뱃단처럼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네

속삭 대운 불꽃 가슴으로
하늘 더듬던 꽃대의 숨결
살포시 미소 짓던 푸르름이

하살처럼 스쳐 지나는데
패인 주름살에 희끗한 백발이
내 마음 축축이 적시네

신우대꽃은
우리 죄를 사(赦)하기 위해 예비한
예수의 십자가인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 십자가를 질 수는 있을까

신우대꽃 곁에서
붉은 죄를 한동안 헤아려 본다

2025.5.7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E-mail : mok2677@naver.com



사단
법인

충남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진동용 목사

고문



박종서 목사

고문



정진도 목사

충남대표회장



진동용 목사

대표본부장



오종서 목사

상임본부장



안준호 목사

실무본부장



김병목 목사

사무총장



김진대 목사

제1부사무총장



김석종 목사

제2부사무총장



최연범 목사

서기



김동현 목사

회계



한동주 목사

부서기



박인규 목사

부회계



이재동 목사

감사



이상수 목사

감사



강신종 목사

천안시 대표회장



한익상 목사

아산시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당진시 대표회장



우경식 목사

서산시 대표회장



최창희 목사

태안군 대표회장



김종남 목사

예산군 대표회장



백돈길 목사

홍성군 대표회장



한동주 목사

서천군 대표회장



전용애 목사

청양군 대표회장



김동원 목사

부여군 대표회장



방효길 목사

공주시 대표회장



김석종 목사

논산시 대표회장



김인도 목사

금산군 대표회장



신동성 목사

천안시 대표본부장



안병찬 목사

아산시 대표본부장



조이철 목사

당진시 대표본부장



김성환 목사

서산시 대표본부장



소대연 목사

공주시 대표본부장



이재동 목사

태안군 대표본부장



김형철 목사

예산군 대표본부장



김병목 목사

홍성군 대표본부장



이문용 목사

서천군 대표본부장



한철 목사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 기념 특별세미나 및 6.25 국가기도회

주 제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일 시 2025년 6월 23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장 소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연지동) TEL. 02-763-9746

대 회 조 직

대 회 장



이광용 목사
(사)예장총연
대표회장

설 교



피종진 목사
(사)한국복음화
운동본부 대표총재

강 사



정성구 목사
전 총신대 총장 및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격려사



강준오 목사
(사)한국기독교인론
법인 이사장

축사



김원식 목사
(사)예장총연
고문

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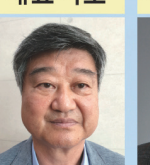
육옥수 목사
(사)예장총연
고문

축도



김기형 목사
(사)예장총연
고문

제1부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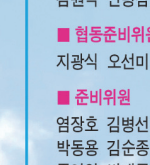
안병삼 목사
(사)예장총연
상임회장

대표기도



원동인 목사
(사)예장총연
지도위원

제2부 사회



김하인 목사
(사)예장총연
지도위원

제2부 기도



김병서 목사
(사)예장총연
상임회장

특별기도



이중태 목사
(사)예장총연
지도위원

특별기도



지광식 목사
(사)예장총연
상임회장

특별기도



박대규 목사
(사)예장총연
지도위원

특별기도



양유식 목사
예장작은자섬김
총회 총회장

특별기도



권혁은 목사
(사)예장총연
지도위원

특별기도



오선미 목사
(사)예장총연
상임회장

특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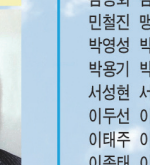
하석수 목사
(사)예장총연
회계

헌금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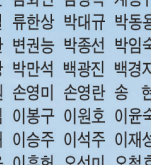
김순종 목사
(사)예장총연
지도위원

색소폰 연주



이강수 목사
예장합동보수총회
부총회장

결의문 낭독



김병목 목사
(사)예장총연
서기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70개 교단)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31길 6, 2층 / TEL: 02-706-2970~1 FAX: 02-706-2990

● 협 력 : CTS기독교TV · 복음신문 · 교회연합신문 · 목양신문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 제75주년 6.25 국가기도회 및 특별세미나

나라 위해 숨진 선진들의 숭고한 정신 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진리의 말씀으로 조국과 영토 보전



이광용 목사
사)예장총연 대표회장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용 목사)는 지난 6월 23일(월) 오전 10시 30분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6.25 75주년을 맞아 제75주년 6.25 국가기도회 및 특별세미나를 갖고 국가의 위기상황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라

져간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예장총회 총회장 김화인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참석자들 모두가 새정부와 한국교회와 개혁을 위해 6.25를 상기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대회장 이광용 목사의 대회사, 예장총연 상임회장 원동인 목사의 대표기도, 예장합동보수총회 부총회장 이강수 목사의 특별연주, 예장합동전국연합 총회 임원일동의 찬양,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광용 목사는 대회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으로 6.25전쟁 이후 복음화의 물결이 이땅에 가득하여지고 나라와 민족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여 세계 강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잘못된 신학이 들어오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면서부터 한국교회에 기도가 그치고 성령의 은혜는 점점 약해져서 기도원이 무너지고 말았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라며 재도약을 위해 기도를 강조했다.

이 목사는 이어 “우리 예장총연은 오직 기도운동과 말씀운동, 성령운동, 개혁운동에 힘써왔다. 매년 한국교회를 위해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분석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해 왔으며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오늘 세미나를 통해 놀라운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피종진 목사는 요 1:1-2 말씀을 본문으로 ‘일어나 외쳐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해서 기도해 힘쓰고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일어나 외치고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을 강조한 뒤 향상 이를 위해 헌신해 온 예장총연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특별기도로 ‘대한민국과 남북통일을 위해’,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 ‘국가안보와 사회, 경제발전을 위해’, ‘저출산 해결 및 사회 도덕, 윤리 회복을 위해’, ‘WCC와 종교다원주의 및 이단폐망을 위해’, ‘한국교회 말씀개혁과 성령충만을 위해’, ‘(사)예장총연과 본 대회 국가기도회를 위해’ 이종태 목사(예장선교총회 총회장), 지광식 목사(사)예장총연 법인이사), 박대규 목사(예장합동보수 총회장), 양유식 목사(사)자생성교회 총회장), 권혁은 목사(예장합동보수 총회장), 오선미 목사(사)예장총연 상임회장), 하석수 목사(사)예장총연 회계)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강준오 목사(사)한국기독교언론협 이사장)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사)예장총연 고문 김원식 목사와 (사)예장총연 고문 육옥수 목사의 축사, 예장보수합동총회 강은혜 목사의 축사, (사)예장총연 법인이사 김순종 목사의 헌금기도 후 전 총신대 총장 정성구 목사를 강사로 하여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 아래 세미나가 이어졌다.

예장총연은 이날 6.25 제75주년 국가기도회 결의문을 발표하고 조국통일과 복음전파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밝혔다. 예장총연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진리의 말씀으로 조국과 영토를 보전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것”이라며 “분단된 조국통일의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날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어 부정부패, 저출산, 이혼 및 자살률 증가,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물질만능주의, 도덕과 문화의 퇴폐 등을 방지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회개하며, WCC와 WEA 종교다원주의의 신앙을 배격하고 성경대로의 복음전파에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특히 “구원의 복음을 온전하게 하고 변질시키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종교일치주의, 비성경적 관용주의를 배격하고 기독교를 표방한 각종 이단 사이비를 경계하며 배격한다”며 오직 올바른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강조했다.

올해에는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을 맞아 지난 26년 동안 10여 명의 총장, 교수, 부총장, 언론 대표들을 초청해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를 개최해온 원고들을 모아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다.

만보걷기와 건강세미나 및 출산장려

한장총 체육위-출산장려위 공동, 세미나 이어 캠페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권순웅 목사) 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진 목사)는 지난 6월 12일(목) 출산장려위원회(위원장:안상운 목사)와 공동으로 건강세미나와 만보걷기 출산장려 캠페인을 펼치면서 저출생 극복운동에 힘을 더했다.

이날 행사는 체육위원회가 그동안 펼쳐오던 체육활동을 만보걷기로 대신하면서 단순한 걷기에서 한걸음 나아가 출산장려위원회가 펼치고 있는 출산장려 캠페인을 함께 펼치며 대국민 홍보에 나선 것이다. 이날 캠페인에는 한장총 산하 26개 교단 총무/사무총장과 체육위원회와 출산장려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했으며, 1부 예배를 드린데 이어 2부 건강세미나, 3부 오찬, 4부 만보걷기 및 출산장려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체육위원장 이승진 목사는 “그동안 체육위원회에서 탁구대회와 볼링대회 등 가벼운 운동을 통해 친목을 도모했는데 이번에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만보걷기와 함께 건강세미나를 계획하게 됐다”면서 “특별히 출산장려위원회와 함께 출산장려 캠페인을 펼칠 수 있어서 의미가 크고, 더운 날씨에도 동참해 주신 총무님들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체육위원장 이승진 목사의 사회로 출산장려위 서기 김명준 목사의 기도와 출산장려위원장

안상운 목사의 설교와 축도로 예배를 드린데 이어, 에스에이치사이언스랩 대표 이승훈 박사와 카이로프락틱 권세혁 원장이 2부 건강세미나를 인도했다.

출산장려위원장 안상운 목사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도 축복해 주실 것이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죄를 회개할 때 출산율도 높아짐을 믿는다”면서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펼치는 출산장려 캠페인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점심식사로 교제를 나눈 후에는 종로5가 일대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해야 합니다”란 글씨가 새겨진 물티슈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면서 한국교회 출산장려 캠페인을 펼쳤다.

한편 한장총 산하 출산장려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CTS기독교TV를 통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5주간 매일 세차레씩(오전8시25분, 오후2시45분, 저녁11시55분) 캠페인 방송이 나가고 있다. 이 방송에는 월요일 권순웅 대표회장, 화요일 안상운 출산장려위원장, 수요일 기장 박상규 총회장, 목요일 개혁개신 김선 총회장, 금요일 호헌 김중주 총회장의 홍보영상이 전파되고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되자

강원지방회

강원지방회(회장 박규희 목사)는 지난 6월 23일(월) 오전 11시 소망순복음교회(담임 김선경 목사)에서 6월 정기 월례회를 개최하고 나라를 위해 교단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회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지방회 소속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단과 지방회의 사역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1부 예배는 성백담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성은 목사의 대표기도, 이어 찬송을 부르며 말씀

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주영 목사(강릉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행 13:1-13), 지방회장 박규희 목사(원주샘물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준종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 주님께서 유일하게 책망하신 일이 믿음부분이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이 사도의 파송을 통해 다시 믿음을 재 점검한다. 교회에 일꾼을 세우고 일꾼이 되는 기준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함으로 세우고 기도함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된다”고 전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환경 바라보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정인철 목사)는 지난 6월 24일(화) 구미주천양교회(담임 진영갑 목사)에서 6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어수선한 세계정세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과 지방회, 교회를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이항구 목사의 사회, 이항구 목사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정인철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롬 8:2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감당의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나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굳건한 삼위일체의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해야 함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설교 후 김재두 목사(성산은혜교회)의 헌금기도, 이석호 목사(은진지방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곧바로 열린 회의는 지방회장 정인철 목사의 인도로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특별히 각 교회의 기도제목들을 따로따로 하나하나씩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월례회에서는 보고 및 안건을 처리하고 주천양교회에서 준비한 점심식사를 함께 하고 경치 좋은 금오산호텔 카페로 이동하여 비 오는 운치를 즐기며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며 교제를 하였다. 그 후 서로 인사하면서 다음을 기약하며 각자의 사역지로 향했다.



“간행물윤리위, ‘음란성 논란’ 책자가 청소년에 유해하지 않다?”

학부모 및 시민단체들, 국민권익위에 “명확한 조사” 촉구

음란성 논란의 초·중·고 성교육 도서 66권에 대해 ‘유해하지 않다’는 판정을 내린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학부모·교사 및 시민단체들이 16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명확히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FIRSTKorea시민연대,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및 전국 67개 학부모·시민단체들은 이날 “66권의 도서는 현재 전국의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서 청소년이 아무런

제재조차 없이 열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변질급은 물론 에이즈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항문성교의 방법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관념을 해친다”며 “항문 섹스를 이론적으로 검증된 성행위 방법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고, 의사들이 허용하는 성행위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민단체의 자체 확인 결과 이들 도서 중 대

부분은 심의 기준에 저촉되는 내용의 총 개수가 60회 이상인에도 불구하고, 도서의 ‘교육적 특성’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면외부를 줬다”고 했다.

이어 “현 간행물윤리위원회 구성을 볼 때 연령별 유해성 여부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규정 제1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하라는 민원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 시대 미래형 교육학’

아신대, ‘양평두물공유학교 대학 연계형 프로그램’ 운영

아신대학교는 양평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양평두물공유학교 대학 연계형 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업은 Zoom을 활용한 원격수업과 오프라인 대면수업을 병행하여 운영되며, 학생들의 접근성과 학습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블렌디드 형태로 진행된다. 첫 번째 강좌는 아신대학교 안종희 교수가 진행하는 ‘인공지능(AI) 시대와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학’ 수업이다. 안 교수는 “미래 교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교육학과 자기탐구를 통한 교직에 대한 적성과 흥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학교와 교육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기만의 교육철학과 교육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에 대

한 비전을 키우고, 미래 교육자를 꿈꾸는 학생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교육적 소양을 펼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강좌는 이미향 교수가 맡아 진행하는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재미있는 인공지능 앱 만들기’ 수업으로,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해당 강의는 블록 기반의 프로그래밍 도구인 MIT 앱 인벤터를 활용하여 코딩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교수는 “학생들이 직접 앱을 기획하고 제작해보는 과정을 통해 디지털 역량은 물론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인공지능(AI) 모델을 직접 만들어보고 이를 앱과 연동하여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로 구현함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과 미래 기술에 대한 이해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길과생명연구소’ 설립기념세미나 개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주의를 따를 수 없다”



‘길과생명연구소’(소장 양봉식 목사)가 지난 20일 한국교회백주년 기념관 4층 소망홀에서 ‘한국교회에 스며든 사회주의와 열매’를 주제로 설립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현재 한국 사회와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갈등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회주의 사상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을 역사적, 신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자리가 됐다. 양봉식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한국의 상황이 자유당 시절만큼이나 혼란스럽고, 이데올로기 충돌로

인한 국민의 좌우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갈등이 한국교회 안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좌우 이데올로기로 갈등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현재의 갈등에는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좌익과 우익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소장은 특히 “의외로 교회가 사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이해하고 믿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의 일부가 사회주의에서 온 것임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주의를 따를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유물론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비상하라

앞산에 장중함이며, 세월의 무게를 머리에 이었는가. 대지여 임을 빌려 희망을 노래하사, 산천초목이며 청라의 목청으로 천지에 화답하라. 아 감격 자유대한민국이여! 그대의 숨결 있기에 칠천오백만의 맥박이 있고 그대의 힘찬 고동소리에 울림의 기상 되리라. 아 터질듯한 대한의 심장이며, 예수의 비전으로 도전하라. 아 자유대한민국이여! 저 푸른 바다 오대양 넘어 비상하라. 아 나의 조국 자유대한민국이여, 저 끝없는 별관 광활한 육대주 건너 도약하라. 대한의 빛 내일의 찬란한 꿈이며, 제 4차 문화 산업의 깃발을 드높이 세워 부국 강병, 문화대국의 전열 기다들자. 아 거룩한 예수 생명, 한국교회여, 영성대국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아 그리스도의 몸이며 군세게 일어나라. 어둠의 권세 결박하고 세계 복음화 깃발 높이 들자. 기억하라 그대들이여, 북녘땅 내 동포들을, 한국교회여, 통곡하라. 지하고교 내 형제를 위해. 오 주여 사랑하는

북녘 땅 옛적 고토의 땅. 부디 복음의 전당으로 새롭게 창조해주소서. 슬프고도 아름다운 땅 함께 울고 웃도록 오 주여 그 날을 속히 이르게 하옵소서. 25분 영적 전투특공대가 오 늘밤(22일) 9시 비행기로 출국하여 유엔 참전용사 기념 예배를 필리핀 경찰청에서 드린다. 6월 25일 이날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 및 참전용사 후손들의 위로회를 갖고 서로 기억하며 함께 격려하는 기념행사가 열린다. 월요일 밤(23일) 저녁에는 1500여 명 나오는 가족세트전도아카데미 총재 박영수 목사가 부흥강사로 집회를 인도한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역시 영혼 구원의 불타는 심령으로 영접기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옮은대로 인도하는 복의 풍로가 되기를 기도한다. 가족세트전도 사무총장 이수 교수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헌혈·생존 시 장기기증 실천자’ 조명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장기기증도 헌혈처럼 당연해지는 사회 되어야”

매년 6월 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해마다 이날을 기념해 생명을 살리는 헌혈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헌혈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생명나눔 중 하나다. 그런데 헌혈처럼 살아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 생명을 나누는 또 다른 방식이 있다. 바로 ‘생존 시 장기기증’이다. 신장은 두 개이지만, 사람은 하나의 신장만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고 1991년부터 2019년까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를 통해 타인에게 신장을 기증한 이는 969명에 이른다. 그 가운데 59%인 573명이 기독교인으로, 이 중 136명은 목회자였다. 이처럼 헌혈과 장기기증을 통해 복음을 삶으로 실천한 신앙인들이 있었기에 우리사회에 생명나눔 문



화가 확산될 수 있었다. 본부 이사장 박진탁 목사(89세, 남)는 국내에서 ‘생명나눔’의 길을 처음 개척한 인물이다. 1968년, 우석대병원(현 고려대병원)에서 원목으로 근무하던 중 응급환자에게 본인의 혈액 380cc를 수혈하며 생애 첫

헌혈을 했다. 이후 매월이 성행하던 1960년대부터 대가없이 혈액을 기부하는 ‘피 주기 운동’을 전개했고, 1991년에는 국내 최초로 생면부지 타인에게 생존 시 신장기증을 실천했다. 이는 국내 장기기증 운동의 시작을 알린 사건이었다. 박 이사장 외에도 헌혈에 이어 신장이나 간 등 장기까지 나눈 이들이 있다. 헌혈에 690회나 참여한 표세철 목사(63세, 남)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1978년, 헌혈 버스 앞에서 우연히 마주한 생명에 이끌려 헌혈을 시작했다. 이후 47년간 매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헌혈에 참여했다. 첫 헌혈을 한 지 13년 후, 그는 스콜라움의 젊은 나이에 타인을 위해 신장을 기증했다. 당시 표 목사의 신장기증이 첫 단추가 되어 수혜자의 어머니가 또 다른 환자에게 신장을 기증하는 릴레이 신장이식 수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사되기도 했다.

오직 예수 신앙...인도 순교자 칸데 무두 기려

한국 순교자의 소리 기독교 순교자의 날 맞아

한국 순교자의 소리(대표 현숙 폴리)는 올해 기독교 순교자의 날(6월 29일)을 맞아, 2020년 인도 힌두교 마을에서 순교한 칸데 무두(Kande Mudu)를 기리는 명판을 서울 사무실의 순교자 연대표에 추가하고,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칸데 무두는 아내와 함께 마을의 유일한 기독교인으로 살며 복음을 전하던 중, 이웃들에 의해 집 밖으로 끌려 나가 잔혹하게 살해당한 순교자다.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6월 29일은 사도 바울의 순교를 기념하는 날로, 세계 각지의 기독교인들은 이날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 목숨을 바친 성도들의 신

앙을 기린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매년 이 날을 맞아 다른 국가의 순교자를 조명해 왔으며, 올해는 인도의 칸데 무두를 주목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칸데와 그의 아내 빈디(Bindi)는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믿은 최초의 기독교인이었다. 공동체 지도자들이 믿음을 버리라고 압박했지만, 오히려 복음을 전했다”라고 소개했다. 이후 칸데 가족은 지속적인 협력을 받았고, 2020년 6월7일 저녁 가정예배 후 무장한 남성들이 집을 찾아왔다. 칸데는 아내에게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

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한 뒤, 집 밖으로 끌려 나가 살해됐다. 다음날 그의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채 길가에서 발견됐다. 아내 빈디는 이후 순교자의 소리와 인터뷰에서 “나는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죽을 것이다. 절대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남편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다. 현숙 폴리 대표는 “칸데 무두는 힌두교 마을의 유일한 기독교인으로 복음을 전하다 생명을 바쳤다”며, “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이어진 복음의 계보에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6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6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25. 8. 29(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25. 9. 11(목) 오후 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25. 9. 25(월) 오전 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25. 8. 29(금)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 사 고 시 : ① 일시: 2026. 2. 2(월)~3(화) 오전 10시 ② 장소: 총회 3층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2026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령은 1995년 4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한다.
7. 직장장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엄하석 고 시 위 원 장 목사 이석호
총 무 목사 오세준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경진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역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명예대표·논설고문,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삶에 이유 있는 인생



세상의 모든 일들은 원인이 있습니다. '왜?'에 대한 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는 이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공부하는지, 왜 일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복된 것이라면 그 이유가 그 사람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 이유가 복되지 못한 것이라면 그 결과도 그럴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에서 야구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특히 메이저리그(MBL)에서 뛰는 선수, 메이저리거(Major Leaguer)는 선망의 대상입니다. 팬들의 인기와 상상 그 이상의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야구선수들도 미국 메이저리거가 되는 것이 꿈이며, 그에 도전해서 몇 명의 선수들이 꿈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박찬호, 추신수, 류현진 그리고 또 몇 명의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고 크게 성공했습니다.

야구를 하는 이유가 분명한 선수가 있어서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그 이야기가 화자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투수인 클레이튼 에드워드 커쇼(Clayton Edward Kershaw)입니다. 커쇼가 어떤 선수인지는 그가 수상한 상이 대신 말해줍니다. 메이저리그 올스타 선출 4회, 미국 야구 역사상 메이저리그 투수로써 사이영상과 MVP를 동시에 받은 9번째 선수 그리고 '사이영상'(Cy Young Award)을 3회 수상 등 다른 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투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야구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생일 때 담임 선생님이 커쇼에게 "너의 꿈이 무엇이니?"라고 물었는데, "제 꿈은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말을 하고만 커쇼는 스스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커쇼에게 다가와서 말하기를 "백만 명 중의 한 명 될 수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선수가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가슴을 뛰게 한 선생님의 이 말이 결국 커쇼를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가 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선수가 야구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합니다. 우연히 시청한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에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너무도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어린이들의 삶 속에서 반짝이는 눈망울을 본 것입니다. 커쇼는 다른 야구선수들이 몸을 만들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기간에 잠비아 단기선교를 다녀왔으며 아내와 신희여행을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고아들을 위해 고아원을 세워주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힘써서 나누어 주는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여 그야말로 땅과 함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고의 투수가 자신이 마운드에 서는 진짜 이유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운드에 세우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삶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 인생, 그 사람이 참된 행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이유를 발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생과 사(生死) 중간에 끼여 있는데, 차라리 천국에 이르는 것이 더 좋겠으나 살아 있는 이유가 있다"(벧 1:21-26)고 말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벧 1:21)

초대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말씀이 있어

스물스물
겉사람이 날 건드릴 때
속사람은 내게 말씀을 건네준다.

주의 영이
함께 함이 이런 것이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런 것이리라...

황량한
바람 부는 인생 광야 길
말씀 없는 삶이란 흔들리는 갈대

말씀이 있어
보이는 것만 보고 당황치 않고
본질을 보며 지금을 견뎌낸다.

말씀이 있어
숨을 쉬며 평안 누리고
약속의 말씀 믿고 내일을 꿈꾼다.

말씀이 있어
서있는 위치 확인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 안식을 누린다.



복잡한 일로 마음이 엉켰다.
모든 것 뒤로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니
성령께서 생각의 질서를 잡게 하신다.

삶은
고달픈데 말씀의 깊은 맛은
날로날로 시원하고 달고 오묘하다.

사설

사법부 장악 시도, 민주주의를 뒤흔든다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대법원 구성을 강제로 밀어붙이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행위로 보인다. 법조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여야 간의 합의 없이, 이러한 중대한 사법제도 변경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법관 증원에 이어,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안,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선거법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법안까지 줄줄이 상정되고 있다. 모두가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다. 민생보다 우선한 것은 한 사람의 정치적 안위를 위한 방탄입법이라는 의식을 피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의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을 슬프게 한다.

법안을 밀어붙인 이들은 양심의 가책은 없었는가. 후세 앞에서 '국가를 위한 일이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는 사법부의 판단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3권분립이라는 헌정 원칙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영구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20년 집권'의 구호가 이처럼 법제화로 실현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권력의 독점이다.

한때 남미 민주주의의 모범국으로 평가받던 베네수엘라라는 우고 차베스 집권 이후 대법원을 장악하며 독재국가로 전락했다. 사법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그 견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폭주하는 권력에 제동을 걸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우려했던 베네수엘라의 길을 연상케 한다. 민주당이 왜 이토록 서둘렀는지, 무엇이 그렇게 급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곧 "우리는 독재로 향하겠다"는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

최근 실시된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대통령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분명했다. 응답자의 63.9%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고, 재판 중단을 지지한 비율은 25.8%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재판 계속(42.7%)과 중단(44.4%)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국민들이 정파적 우월보다 사법 정의의 실현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한 입법은 반드시 그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된다.

정치의 본령은 갈라진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 '서로가 우려하는 바를 하지 않는 것이 통합의 출발점'이라는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정치권은 상대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상대를 긴장시키고 안하무인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면서 통합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존중 없는 통합은 불가능하며, 다수의 폭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행위일 뿐이다.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동시에 원 정치 세력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정 원칙을 무시할 경우, 민주주의는 허울뿐인 겉데기로 전락하게 된다. 한국 정치는 오랫동안 정당 민주주의의 본질을 상실하고, 권력의 맹종과 줄서기에 익숙해져왔다. 그 결과 유권자의 88%가 정당 활동에 불만족하고, 10명 중 6명 이상은 현재의 정당 체제로 민주주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정치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국민적 저항은 불가피할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사익을 위해 입법권을 동원하는 정치는 반드시 멈추어야 한다. 정당은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것은 다수가 아니라 절제하는 권력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책임'과 '민주적 규범'이다. 권력은 조심스럽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야말로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마 20:25-28) 정치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의 본분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 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4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74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25년 7월 17일(목) 오후 1시 (11시 30분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7월 4일(금)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 또는 팩스(02-2677-518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4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엄 하 석
총 무 목사 오 세 준